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조국현상과 법치위기

[발제자]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

[지정토론자] 이동규 내일을위한오늘 세미나위원장

[일 시]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2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조국 사태를 보면 선출 권력이면 어떠한 행동도 용인되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출된 권력의 권한 행사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정도로 유능하고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보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 검찰제도와 형사사법시스템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검찰개혁의 최대 과제는 인사권과 정치권력의 수사 관여이다. 이것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과 검찰의 독립만 강조하다 보면 검찰 파쇼가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검찰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의 권한이나 기능이 일탈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양자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 조국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자본인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총 책임자이다. 그 지위와 자격에 걸맞지 않은 자 즉, 대학입시 제도의 위기, 공정의 사회가치를 훼손한 당사자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립의 논거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부패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서로 거리가 멀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 검사의 권한 외에 군 검사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명분과는 달리 강력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사찰 수사 기구화가 되는 것이 아닌 가 우려된다.

■ 검찰의 경우 ‘국가 검찰 위원회’를 조직하여 인사, 징계, 감찰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검찰개혁에 있어 인사와 징계 감찰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조직법을 검토하여 검찰 조직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중요하다.

■ (지정자 토론) 청년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정의로운 사회는 기회의 다양성이 제공되고 공정성이 갖춰진 사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투명한 사회, 정직이라는 가치가 작동되는 사회다. 청년세대가 조국 사태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이유는 조국 딸 사건이 과거 정유라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의 도움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헌법수호, 정직, 공정, 도덕, 책임의식과 같이 법무부 장관 지위에 걸 맞는 덕목에 많은 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행동이 달랐기에 분노한다.

◆ 조국 사태의 본질

- ◆ 헌법 제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보면서 선출 권력이면 어떠한 행동도 용인되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출된 권력의 권한 행사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

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그 직무를 수행할 정도로 유능하고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유명무실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 존재 이유에 회의마저 든다.

- ◆ 검찰제도와 형사사법시스템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법원 제도와 검찰 제도는 87년 헌법 개정 시 바뀌지 않았기에 현 검찰 제도는 과거 유신과 5공화국 시절의 제도가 그대로 내려왔다. 검찰개혁의 최대 과제는 정치권력이 검찰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사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 ◆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과 검찰의 독립만 강조하다보면 검찰 파쇼가 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검찰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검찰의 권한이나 기능이 일탈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양자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많이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할 경우 필요한 부분이다. 선출된 권력에 의한 무소불위 검찰 통제 논리보다 검찰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검찰권력 및 수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 조국 수사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 ◆ 조국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자본인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총 책임자다. 그러나 지위와 자격에 걸맞지 않은 자 즉, 대학입시 제도의 위기, 공정의 사회가치를 훼손한 당사자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 ◆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최고 책임자가 조국이라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립 논거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부패 척결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누설, 정치자금법상 부패 행위 등이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부패와 직권남용, 직무유기와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 검사의 권한 외에 군 검사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신설되면 공수처 검사가 정부, 군, 국방부, 합참 등에 직권남용을 이유로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라는 것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대통령 직속의 사찰 수사 기구화가 되는 것이 우려된다.

◆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

- ◆ 검찰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작 권력을 놓아야 할 권력층이 권력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국가 검찰 위원회’를 조직하여 인사, 징계, 감찰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 검찰개혁에 있어 인사와 징계 감찰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조직법을 검토하여 검찰 조직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프랑스의 조직법은 헌법과 법률의 중간 단계로서 헌법보다는 낮지만, 법률보다는 지위가 높은 법이다. 조직법의 특징은 일반 법률에 비해 통과 요건이 강화되어 있고 헌법위원회에서 사전 위헌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그렇기에 대통령 임의로 직제령을 통해 검찰 조직을 갑자기 없애거나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정권의 변화 이후에도 중요한 기관이 정권의 전리품으로의 전락을 방지할 수 있다.
- ◆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중요하다. 그러나 검찰의 독립만을 강조하다보면 검찰이 정치 권력화 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 통제권을 분리하고 수사한 결과에 대해 검찰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정토론자의 토론 (이동규 내일을위한오늘 세미나위원장)

- ◆ 청년세대가 조국 사태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이유는 조국 딸 사건이 과거 정유라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의 도움으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행동이 달랐기에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와 검찰수사를 보면서 청년들은 조국문제를 ‘조로남불’이나 양과겉질 같은 ‘어니언조’로 부른다.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말과 글이 자신에게 모두 적용되어 자충수가 되었다.
- ◆ 청년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정의로운 사회는 기회의 다양성이 제공되고 공정성이 갖춰진 사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투명한 사회다. 이와 더불어 정직이라

는 가치가 작동되는 사회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이란 헌법의 수호자이며 정직성, 도덕성, 일관성, 공정성, 책임의식이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덕목에 많은 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 청년들은 지금 조국 현상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생 답게, 청년답게 우리의 분노를 유쾌하게 표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국닷컴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니언조’ 굿즈 에디션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일일카페를 열어 그곳에서 청년들의 결집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청년의 의사를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곳에서 청년들이 단순히 불만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 사회에 전달하려는 플랫폼으로 운영하려 하고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